



육계자조금사업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 육계자조금 성공의 열쇠

**이 홍 재**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 의장



## 서론

많은 육계인의 기대속에 첫걸음을 내딛은 육계자조금사업이 제자리걸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고사하고 관리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면 미리부터 예상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원화된 생산자단체와 정부당국의 무관심,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불신과 반목 등이 어우러져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자조금사업은 법률에도 명시되었듯이 소비자 촉진활동을 통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그러나 지난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조금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 본론

이런 일의 근본적 원인은 육계산업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정책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계열화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자(사육농가)중심이 아닌 계열주체 중심으로 시행됐고,



사육농가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면서 일방적인 피해의식만 키우게 되었다. 이 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논리에 사육농가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으로 전락해버리고 정부당국의 무관심속에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특히 계열화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면서 농가간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구심점이 없어진 것이 큰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계열주체와 사육농가와의 관계가 산업의 동반자가 아닌 닭고기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고 사육농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사육농가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되고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계열주체와 정부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대화와 협의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조금 대의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자조금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자조금 사업은 계열주체나 사육농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은 산업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육계자조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정부당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 1) 정부당국의 문제

육계자조금사업이 계열주체와 사육농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작년 12월 23일 대의원회의가 무산된 이후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관리위원 선출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주장을 펼치며 대립



하여왔다. 결국은 대의원회의에서 관리위원 협의추천안 부결에 이은 관리위원 직접선출이라는 실행행사를 통하여 대의원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육계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대의원들은 정부당국이나 계열주체가 대의원(넓게 생각하면 사육농가)을 대화나 협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고 계열주체는 지금껏 해온 것처럼 계열주체의 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농협이나 양계협회는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내세워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고 농림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용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자조금사업은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간섭은 당연한 것이고, 원활하게 시행되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을 놓고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여 육계산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육계사육농가에게 육계산업의 핵심은 육계사육농가라는 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어야한다. 계열화사업이 일반 기업의 경영 정책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기에 생산을 담당하는 사육농가가 정책적인 배려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을 세워 시행할 때 그 정책이 농가에게 미칠 영향과 산업전체에서 발생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체 구성원이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보호와 배려속에서 미래

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육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열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간 점검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하나의 정책이 20여 년간 시행되면서 장점만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점은 더 강화하고 문제점은 해결하고 넘어 갔어야 하나 아무런 점검 없이 20여년을 이어오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 결국은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한번쯤은 되짚어보고 평가를 해서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을 지속하기위한 현명한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사육농가의 문제

대의원들 역시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성과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조금사업의 본질을 떠나서 농가가 처음으로 육계산업의 정책을 주도 할 수 있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큰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육계사육농가들은 정책적인 소외와 계열사의 기업논리에 휘둘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협상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대표를 뽑고 대의원회의를 구성하여 사육농가의 의견을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불만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깔려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조금사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조금사업의 본질을 훼손해가면서 육계산업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자조금도 실패할 것이고 모처럼 찾아온 사육농가의 정책참여의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혁명과 개혁이 있다. 육계산업에서 혁명이라 함은 계열화사업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개혁이라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스스로의 문제지만 육계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육계산업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조금사업의 열매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육농가 역시 많은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계열화 사업구도 아래서 농가간의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잘못이다. 단결된 힘이 없다면 계열주체와 대화와 협상의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의 해결방식도 개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들기가 어려웠다.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방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나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육계산업 전체에서 생산자가 지켜야할 몫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생산자의 정당한 목소리는 산업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양계협회라는 좋은 구심점이 있지만 현명하

게 이용을 못하고 오히려 분열의 요인이 되기 까지 한다. 물론 계열화사업구조안에서 양계협회의 역할이 한계는 있겠지만 전체 육계산업을 놓고 볼 때는 양계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입안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또한 사분오열되는 많은 농가의 의견이 합쳐질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 3) 계열주체의 문제

계열주체는 지금까지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흐름을 주도해왔다. 계열화사업의 결과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계열주체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육계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계열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관행화되다보니 많은 부작용과 모순이 나타났고 특히 사육농가는 결집된 의사를 나타낼 기회마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자조금사업에서도 대의원과 원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조금사업 역시 계열주체의 일방적 결정에 대의원이 동의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사육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침해하면서 자조금사업이 시행된다면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마찰과 갈등이 생길 것이며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관리위원 선출문제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과 진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대의원회에서 부결됐다고 그 파행의 책임을 대의원회와 사육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산업의



리더로서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열주체에서 자조금 대의원회를 통하여 생산농가가 결속하여 새로운 세력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차라리 생산농가의 이런 힘이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쓰여 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계열주체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육계산업의 주체가 생산 농가라면 계열화의 핵심은 계열 주체이다. 계열회사를 통하여 육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산업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 기업논리에 치우쳐 소비자나 생산농가 중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특히 사육농가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의 발전과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사육농가와 얼마나 많은 대화와 고민을 해왔는지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자조금 대의원회의에서 왜 농가의 불만이 터져 나와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육농가가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위탁사육 계약서이다. 20여 년간 계열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육농가와 계열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상을 통하여 사육계약서를 갱신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가 반영된 계약서라면 그 계약이 유지된다고 하여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동반자나 사

업의 파트너니 하는 얘기는 허울 좋은 얘기에 불과할 뿐이다. 생산농가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육계산업이 지탱해 나갈 버팀목인 것이다.

## 결론

자조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다. 설령, 어렵게 자조금사업이 시행된다 하여도 계열주체, 사육농가, 정부당국간의 신뢰가 없으면 자조금사업은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생산자단체부터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과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자조금사업은 시행조차 불가능할지 모른다.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육계산업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생각도 잘못이고 자조금사업 마저도 계열주체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생산농가는 산업의 중심역할에 한발 다가서고 계열주체는 생산농가를 산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생산농가와 계열주체가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를 앞세운 개방화 시대에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기업경영의 노하우와 생산농가의 정서적 무기가 육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반목과 불신을 접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양계**